東大新聞

發行人 鄭在覺
編輯人 崔世榮
印刷人 方又榮
主幹 洪起三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林翼斗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종학생회장 當落미정

——지난 22일 총선거 가져

選管委 운영 차질빚어 單大會長 등 10명 選出돼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제반 절차로 지난 21日(月) 각 후보자들은 廣州大學 選擧유세를 마쳤다. 8名의 후보자가 14日마감인 후보등록을 마쳤으나 백상운(農經·3) 후보의 사퇴로 유한상(法學·3) 군을 7名의 후보가 선거를 치루었다. 한편 22日(火) 실시된 총투표율은 서울 本校生 5千4百21名중 3千9百51명이 투표, 72·88%를 나타냈으며 23日(水) 상오 4時, 총학생회장개표를 마지막으로 모든 개표를 끝냈다.

◇총선거 투표광경

18日 부재자투표에 이어 22日(火) 8個단과대학 및 경주대에서는 단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총학생회장투표가 있었으며 오후 8時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 학생회장에 대한 부재자투표함이 개함되면서 이날 개표는 시작되었다. 선관위원 및 여학생회장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함 봉인 여부확인이 이루어진후 본격적인 개표로 들어갔다. 결과 고재정(印哲·3) 후보가 총 3백55표를 얻어 당선확정되었다. 이어 文理大·師範大順으로 단대회장 개표가 진행, 불교대의 안종석(상가·3)후보와 법정대의 박기룡(행정·3)후보가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文理大에 2백8표를 얻은 김상순(物理·3) 후보가 經商大에 4백7표를 얻은 민희원(貿易·3) 후보가 最大에 2백1표를 얻은 김대복(社學·3) 후보가 工科大에 최수남(전기·3) 후보가 師範大에 김승용(國敎·3)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경주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총선거를 지난 22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학생회장 지정된 장소에서 총유권자 1천98名중 9백21명이 참가하여 8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개표는 오후 20분부터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여학생회장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개표결과 총학생회장 석두보를 54표 차로 누르고 개표를 끝마쳤다.

한편 경주대학 학생회장에는 황평원이 표다결이 에 은상되었으나 (사학·26표)를 얻은 김동윤(사학·2)후보가 2백38표를 얻은 김태형(경영·2) 2백30표를 얻은 이정하(회계학과·2)를 제치고 경주대 초대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여학생회장에는 명수(국사·2)후보가 75여 표를 얻어 35표를얻은 정경숙(영문·2)후보를누르고 경주대 초대 여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경주發〉

경주대 總選실시

회장에김동윤(국사·2)군

경주대에서는 총선거를 지난22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학생회장 지정된 장소에서 총유권자 1천98名중 9백21명이 참가하여 8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개표는 오후 20분부터 총학생회장을 시작으로 여학생회장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개표결과 총학생회장 석두보가 총 3백55표를 얻어 8번 방덕주 후보가 3백42표를 획득하여 2백88표를 얻은 기호 6번 장재각후보를 54표 차로 누르고 개표를 끝마쳤다.

한편 경주대학 학생회장에는 황평원이 표다결이 에 은상되었으나 (사학·26표)를 얻은 김동윤(사학·2)후보가 2백38표를 얻은 김태형(경영·2) 2백30표를얻은 이정하(회계학과·2)를 제치고 경주대 초대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여학생회장에는 명수(국사·2)후보가 75여표를 얻어 35표를얻은 정경숙(영문·2)후보를누르고 경주대 초대 여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경주發〉

紙上공개사과요구등 決議

金大中씨 政治發言 물의

4·19혁명 20돌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18일 대학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된 「4·19기념 강연회」에서 「4·19혁명과 민족통일」이라는 연제로 진행된 金大中씨의 강연내용이 행사의도와는 달리 정치강연의 성격으로 바뀌어 全東國人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번한 욕지일으로 지난 22일 불상앞에서는 불교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성토대회가 가졌었고 「유네스코학생회」 「써클연합회」 등도 각각 견의문을 채택, 주제에 어긋난 金氏의 강연을 힐난하였다.

◇22일 불상앞 성토대회 지난진 金氏의 정치발언에 대한 성토를 목적으로 열린 同대회에서 이복수(농가·4)군은 성토문을 통해 강연결과를 「東國의 장구한 역사에 돌이킬수 없는 오점을 찍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짓고 「기성정치인을 학원에 끌어들인 장신한 학원을 유세장 한 장본인들을 규탄한다」고 성토했으며 한순상(경제·3)군은 「학생들의 순수를 역이용하여 학원발전의 저해를 초래한 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우리 東國을이용, 개인전, 정치유세로 순수한 대학생들을 무시한 金大中氏는 신문지상에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클연합회 (회장=한상길·미술3)

분제가 된 강연회의 순수한 목적이 현실의 혼돈속에서 4·19혁명정신의 구현및 재현으로 역사의 주체자로서 행위함에 지표를 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氏의 연설은 4·19에관한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청중들에게 주지시키고 인기에 영합하는데 중점을 둔데다해 金氏를 초청한 대의원회와 학교측에 해명과 사과성지를 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네스코 학생회 (회장=이수용·학학4)

同會에서는 「승고한 4·19혁명정신을 기리려는 본정신을 해곡, 자신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한 재야인사를 규탄한다」는 내용과 「진정한 역사의식을 가지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 (의장=정기섭·정외4) 에서는 4·19기념 강연회에 대해 김대중씨에게 사과문을 지난 2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 측근에서는 이번사태가 빚어진데에 대한 사과문을 대의원회에 보내왔다. 사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國人에게 드립니다.

戒嚴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난 18일 「4·19혁명과 민족통일」의 연제로 강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강연진행과정에서 본의아닌 물의가 빚어진게 생각하며 성의껏 복수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많은 인파로인해 학교시설물이 파손되는등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도 아울러 미안스럽게 생각하며 성의껏 배상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동국大學校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0년 4월 23일

김대중드림

4·19기념강연회

金大中, 高銀 演士로

金大中, 高銀씨를 연사로 하는 4·19기념강연회는 본교 대의원회의초청으로 지난 18일 중앙강당에서 있었다.

5만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중강당을 꽉 메운 자리에서 먼저 高銀씨는 「4·19는 중국의 5·4운동등 아시아 민권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며 「진정한 역사운동은 민중운동이어야만 그 가치를 지닐수 있다」고 했다.

本社 創刊 30周年 紀念 제1부 지난15일 오후 3시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4·19혁명의 연사를 모시고 「民主化時代의 大學言論」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다.

사회혼란과 격동기 속에서 함께 성장해온 본사의 역정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의 세미나에서 개최에 앞서 宋建鎬선생은 「社會變動과 新聞의 役割」이란 연제아래 「자립성을 띠고 있는 언론부터 출발하자」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

이번 광사는 금주 안에 착공, 보름정도 工期가 소요된다.

한편 그동안 너무 낡아 문제시되던 도서관 서고보수공사와 체육문 일부 보도블럭 보수공사도 이번週 안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春계대학 야구연맹전

계속 단독질주, 우승 눈앞에

지난달 30일 개막된 춘계대학야구연맹전 본교는 지난 21日(月)·22日(火) 경희대와, 5월2일 성균관대와 각각 경기를 가져 수승했으며 본교는 연패, 실점을 안게 주었으나 중반에 들면서 金城溪 葛政男 洪淳鳳등의 타봉에 불이 붙어 다시 선두를 달리게 되었다. 우승을 향해 快走하고 있다.

22일 청운관대와의 대전에서, 2회초 먼저 2점을 나이먼 홈런에 힘입어 2회말 1점을 만회 역전의 발판을다져놓고 다시 3회말 金城溪의 시원하게 아아치를 그리는 역전 투런 홈런으로 승리를 굳혔다.

한편 24일 인천에서 벌어진 한양대와의 대전에서 도원제3:1로 눈부셔우승에 상승력, 앞으로 26일청주에서 있을 전국대와의 대전만이 이번 대회우승의 고비가될 것이다.

이밖에도 본교 야구팀은 30일부터 대구에서 개막될 동일대기 챔피언전에 대한 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첫날 동양대와 대전하게 된다.

民主時代의 大學言論 모색

東大新聞 세미나 성황이뤄

4·19紀念 第11回「東國人 登山大會」

28일까지 산악회 캠프에 신청

4·19紀念 第11回「東國人登山大會」(大會長=鄭在覺총장)가 오는 5月 1日 北漢山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직원부, 재학생, 써어클부, 졸업학원부(졸업학교 재학생 포함) 들을 대상으로 하는 同大會의 참가신청은 23日부터 28日까지 학생회관 앞 동악산악회 특설캠프에서 발부하는 소정의 신청서 1부를 위의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登山大會의 출발지는 4·19탑(우이동)인데 午前9時부터 10時까지 참가팀이 도착하는대로 팀별로 出發시킬 예정이며 코스는 4·19탑에서 성도암앞 능선 대동문을 거쳐 軍倉庫에서 점심을 먹고 龍岩門을 지나 道詵寺에서 最終 集結하게 된다.

道詵寺에서는 장기자랑 및 시상식을 갖고 해산한다.

시상은 26개 부문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최우수상 1팀, 우수상은 각부별 1개팀, 준우수상, 장려상 등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준비되어 있다.

체육관등 도장공사

高校능구대회 대비

총무처 (처장=金鎬淵 교수) 에서는 본교가 주최하는 「구수고교초청 전국고교 농구대회」를 대비, 실내체육관의 도장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다음과같다.

▲축제행사 준비결정▲총학생회에 대한 찌를연합회대비▲찌를연합회 제반문제토의.

본론결과 축제행사의 준비는 연합회자체內에서 맡아 행사는 유평別로 나누어 준비할것을 결정했다.

또 회의후에는 총학생회 간부 및 동아리 연합회의 참석하에 가을축제 준비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총학생회 간부 및 동아리 연합회의 참석하에 가을축제 준비를 논의하였다.

28日 會長선거등

行大院, 학생총회

학원민주화·자율화, 각대학의 總學生會長선출에 이어 本校 行政大學院 (원장=金鎬淵교수) 에서는 同大學院學生會會則改定및 會長선출을 위한 學生總會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6년만에 실시되는 行政大學院 特講

정재각總長 演士로

행정대학원 (원장=金鎬淵교수) 에서는 「歷史的 관점에서 본 民族주체성」이라는 주제로 정재각총장을 연사로 초청, 25日(金) 오후 7시부터 1시간에걸쳐 교수총합세미나실에서 全행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여학생회관 기공식

박계산 동문이 건립비 희사

동창회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여학생회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지난 16日 오후 1시30분에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鄭在覺총장, 金鎬淵 (경영대원장) 교수, 각 처·과장 등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기공식은 상대적으로 높아 올 비롯,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10시 동국대학교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戒嚴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난 18일 「4·19기념 강연회」에서 「4·19혁명과 민족통일」의 연제로 강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강연진행과정에서 본의아닌 물의가 빚어진게 생각하며 성의껏 복수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많은 인파로인해 학교시설물이 파손되는등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도 아울러 미안스럽게 생각하며 성의껏 배상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동국大學校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0년 4월 23일

김대중드림

紙上공개사과요구등 決議

金大中씨 政治發言 물의

4·19혁명 20돌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18일 대학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된 「4·19기념 강연회」에서 「4·19혁명과 민족통일」이라는 연제로 진행된 金大中씨의 강연내용이 행사의도와는 달리 정치강연의 성격으로 바뀌어 全東國人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번한 욕지일으로 지난 22일 불상앞에서는 불교대학생들을 주축으로 성토대회가 가졌었고 「유네스코학생회」 「써클연합회」 등도 각각 견의문을 채택, 주제에 어긋난 金氏의 강연을 힐난하였다.

◇22일 불상앞 성토대회 지난진 金氏의 정치발언에 대한 성토를 목적으로 열린 同대회에서 이복수(농가·4)군은 성토문을 통해 강연결과를 「東國의 장구한 역사에 돌이킬수 없는 오점을 찍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정짓고 「기성정치인을 학원에 끌어들인 장신한 학원을 유세장 한 장본인들을 규탄한다」고 성토했으며 한순상(경제·3)군은 「학생들의 순수를 역이용하여 학원발전의 저해를 초래한 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우리 東國을이용, 개인전, 정치유세로 순수한 대학생들을 무시한 金大中氏는 신문지상에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클연합회 (회장=한상길·미술3)

분제가 된 강연회의 순수한 목적이 현실의 혼돈속에서 4·19혁명정신의 구현및 재현으로 역사의 주체자로서 행위함에 지표를 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氏의 연설은 4·19에관한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청중들에게 주지시키고 인기에 영합하는데 중점을 둔데다해 金氏를 초청한 대의원회와 학교측에 해명과 사과성지를 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네스코 학생회 (회장=이수용·학학4)

同會에서는 「승고한 4·19혁명정신을 기리려는 본정신을 해곡, 자신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한 재야인사를 규탄한다」는 내용과 「진정한 역사의식을 가지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회 (의장=정기섭·정외4) 에서는 4·19기념 강연회에 대해 김대중씨에게 사과문을 지난 22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 측근에서는 이번사태가 빚어진데에 대한 사과문을 대의원회에 보내왔다. 사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國人에게 드립니다.

戒嚴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난 18일 「4·19기념 강연회」에서 「4·19혁명과 민족통일」의 연제로 강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강연진행과정에서 본의아닌 물의가 빚어진게 생각하며 성의껏 복수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많은 인파로인해 학교시설물이 파손되는등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도 아울러 미안스럽게 생각하며 성의껏 배상해드리는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동국大學校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80년 4월 23일

김대중드림

4·19혁명 오광대, 봉산탈춤등 공연

통영 오광대, 紀念式거행

4·19혁명 20주년 기념식이 지난 19일 오전10시 鄭在覺총장을 비롯 崔世和 교수 등 학생처장, 교직원, 학생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東大學校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崔鐵九(국학원장) 교수의 기념사 및 학생대표 朴淇宗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념식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본교 체육관에서 「4·19를 기념하여」라는 제목아래 「오광대」 「봉산탈춤」 「꽁연」 「꽁연」 「꽁연

變化된 選學 樣相

사설

選學란 하나의 組織體가 存在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制度이다。이것이 특히 代表性의 根據를 組織成員에서 구하게 될 때는 더욱 重要한 性格을 띠게 된다。그동안 絶制되어왔던 學生 自治機構는 學國 民主化의 물결을 타고 總學生會가 復活하게 됨에 따라 東岳의 캠퍼스에도 總學生代表를 선출하는 선거가 實施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선거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特色으로는 選學公營制와 그에 따른 제반 절차가 國家總選擧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點을 들 수 있겠다。選擧의 過熱現象을 방지하고 立候補者에게 公正하고 平等한 機會를 賦與하기 위해서 취해졌수 있는 조처가 로 선거공영제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제도가 旣成 政治人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一般選擧에서 볼수 있는 것과는 반드시 一致해야 할 것인가에는 의문을 낳게 된다。즉 立候補의 投票 參與度는 70%을 上回하고 있으며, 一般學生들이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지를 간과할 수 없다。

즉 조용하고 秩序있는 캠퍼스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意志의 표시도 主權意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다고 하겠다。물론 많은 立候者의 氣立으로 인해 相對的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關心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으로는 支持度의 偏在現象과 全體敎育投票에 대한 個人候補가 얻게 된 得票率의 過少現象이다。代表性이 갖는 一般性에 비추어 보아 偏在現象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선거전략과 公約의 比重에 따라 불가피할수도 있겠다。아울러 많은 候補者가 亂立하게 됨에 따라 最多得票者도 20%를 넘지 못하게 되나 반드시 過半數의 支持가 아니라도 엄연한 代表의 資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제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낼 수 있는 관용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선거에서 採擇했던 立候補의 기탁금제도는 檢討되어야 할 사항이다。일반 선거에서 채택되는 選擧供託金制度는 過多한 선거운동과 그로 인한 선거운동 경비를 줄이는 方便과 또 한편으로는 입후보자의 亂立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解釋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制度에서의 選擧旨託金은 本來의 선거공탁금제도의 意義를 살릴 수있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후보자가 납입할만큼 同制度가 아무런 제어장치도 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다만 입후보자들에게 부담감만을 안겨주었으며, 이러한 경비지출은 當選後의 豫算流出과도 無關할 수 없는 結果로 연결될 위험마저 있기 때문에 次後 是正을 要하는 부분으로 지적될수 있다。

이번에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정성한 管理는 지나치게 큼직하여 既成政治人들과 差異를 찾기 힘들었으며 이것은 다른면에서는 찾기 힘들었는 逆說이 될 수 있겠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관리상의 착오도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아 훌륭한 관리였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입후보자들은 同委員會의 決定에 신중히 검토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選擧運動過程에서보여준 特色으로는 對的으로 싸임새있는 選擧公約의 提示를 들 수 있다。이러한 선거공약에는 학원가의 새로결을 의식한 公約을 비롯하여 비교적 時事性이었으며 당면한 課題에 관한 공약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立證하는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代表的으로 들 수 있는 공약중에는 敎授只 無能敎授의 退陣, 豫算의 開的 運營, 福祉施設의 確充, 奬學制度의 內實化等으로 학생들의 소나타이 민감하게 反應했다고 하겠다。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회의 기능을 벗어난 점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학생들의 진정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學校當局은 學生들이 一般的으로 무엇에 채워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반 措置를 강구하는 것이 補完되어 할 것인가를 學生들이 내건 選擧公約을 中心있게 檢討하여 學生會의 機能을 心있게 學校當局의 所管事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支援과 學校行政에의 反映이 있어야 함을 指摘하고자 한다。

全體的으로 보아 選擧運動은 秩序있고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끝맺게 됨 수 있었던 것은 立候補者들의 自重과 學生들의 社會的 責任意識의 發露였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이 나라의 民主化過程에 希望을 던져줄 수 있는 모범을 보내고 싶다。그러나 立候補者들의 所見發表會에 대한 一般學生들의 無關心現象은 이번 선거에서도 例外없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選擧時 數次에 걸친 所見發表會는 制限됨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多辛하게도 선거운동기간에서 보여주었던 無關心에도 不拘하고 學生들의 投票參與度는 70%을 上回하고 있으며, 一般學生들이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지를 간과할 수 없다。

즉 조용하고 秩序있는 캠퍼스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意志의 표시도 主權意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다고 하겠다。물론 많은 立候者의 氣立으로 인해 相對的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關心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으로는 支持度의 偏在現象과 全體敎育投票에 대한 個人候補가 얻게 된 得票率의 過少現象이다。代表性이 갖는 一般性에 비추어 보아 偏在現象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선거전략과 公約의 比重에 따라 불가피할수도 있겠다。아울러 많은 候補者가 亂立하게 됨에 따라 最多得票者도 20%를 넘지 못하게 되나 반드시 過半數의 支持가 아니라도 엄연한 代表의 資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제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낼 수 있는 관용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人間은 自由의 刑에 處해 있는 存在

<1>

파리를 생각할 때는, 루브르 박물관과 장·폴·싸르트르(1905~1980)가 있을 뿐이다。77년 2월의 파리 여행때 싸르트르를 만나고 싶었던 것은 한낱 과욕이었을까? 일주일 안팎의 나그네로선 무리한 기도였다는 것일까? 찌어도 한달전부터 알았을 조명해 주고 압박을 물아내 줄수 있는 희망의 동아줄이 될수 있을까。

19세기말의 시대에 유럽의 허무를 虛無의 시대에 허무를 無化시키느라 발버둥쳤다 발광했음으로, 그나마 인류는 구제받을 수 있는 복체를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하겠지만, 20世紀末은 더욱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인가。어디에 기적이라도 있어난다는 것인가。

<2>

日本의 실존철학자 九鬼周造와 하이덱거 사이에 닥음과 같은 이야기가 오고간적이 있다。九鬼가 파리에 가서 『도이취 哲學과 프랑스語』를 서로 주고받을 수있는 사람이 있거든 나서라』는 말씀한 신분광고를 냈더니, 며칠후에 사람드디거에 더벅머리 청년 하나가 광고를 보고 왔노라면서 약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가 바로 훗날의 싸르트르 그사람이었다는 것이다。학구열이 왕성한 젊은날의 싸르트르다운 에피소드가 아니냐。그는 그를 흠하여 도이취 哲學중에서도 하이덱거를 더 많이 배웠을 것으로 믿어진다。

1928년의 교수자격시험에 낙방하고 그 다음해에는 수석합격자가 될수 있었고, 또고등사범학교 때의 동급생이면 시몬느·드·보부아르와 계약결혼생활을 시작 했는데, 그들의 계약은 2년에서 平生으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그녀는 천하의 어떠한 아내보다도 훌륭한 아내 아닌 구원의 연인으로서 고독한 남편 아닌 樂人의 일생을 지켜볼수 있었고, 물내는 학위만 장례식의 영구 걸에서 저승길에로의 마지막 박력자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연인관계는 이룰수도 흐내낼 수도 없는 유니크한 것이었다。그들의 조국프랑스사회의 관용에 대하여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31년에는 兵役을 마치고 北佛의 어느 항구도시의 高等中學校 교사가 되었고, 33년에는 도이취로 가서 훗설과 하이덱거의 哲學을 공부하고, 36년에는 훗설의 영향하에 쓰여진<想像力>을 출판하고, 38년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대표작인<嘔吐>를, 그다음해에는 단편<壁>을 발표함으로써, 獨逸戰布告를 함으로써 行動하는 信念과 鬪爭의 實存主義 思想家로서의 본격적인 생애의 門이 열린다。哲學과 人間實存, 그리고 그 實存과 現實이 하나로 융해되는 이른바 앙가주망의 生活 곧<싸르트르時代>의 門을 활짝 열어젖힌다。

싸르트르는 출점하여 포병대 소속의 氣象班員이 되어 알사스地方에 주둔하게되고, 40년으로 들어서면서 그의 철학적 대표작인<存在와 無>의 초고를 쓰기시작한다。이해 6월 21일에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해의 성탄절에는 自作의 反比利的인 희곡<바리오나>가 상연되었고, 41년 5월에 석방되자 빠리로 돌아와 고등중학교에 복직하고, 여기서 필생의 동지인 메르로 퐁티, 카뮈, 스페인스 그들을 결정했으며, 희곡<파리>를 집필하고 42년 9월에는 나치스의 패색이 짙어가자, 빠리는 일제히 봉기하였고, 8월24일에 빠리가 해방되자<實存主義>에 대하여<늘 발표하고, 45년에는 敎職을 떠나<파뽀>의 특파원이되어, 전시하의 美國과 캐나다를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오랜 숙원인<現代>誌를 메르로 뽕티등의 동지들과 발간하는데, 10월호의 창간호에<창간사>의 "각발을 날리며 축하하라고 떠들어 멋전만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며, 大戰은 無關心과 고민사이에서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하는 선두로 시작된<大戰의 종말>을발표하고, 46년에는<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를 간행, 그다음해에는<文學이란 무엇인가>를 발표, 그다음해에는<現代> 7월호의 기사가 까르로를 사국하여 사단이 벌어지고 50년에는 메르로 뽕티와 연명으로 훗설의 反共主義를 비판함으로써 左右兩翼 협공을 발발토 인한 정치정세의 분석에 있어서 M 뽕티와 意見對立을 보았고, 51년에는 연초 결렬 때도 그의 관심을 판하는 <살아있는 지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52년에는<現代>8월호에<反抗的 人間>에 대한 프란시스·장송의 비판을 불만스럽게 파시즘 단결을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同 멤버들과 함의하여, 파시즘과 인종적 편견에 항의하여 사이에 정전협정이 성립되자, <夢遊病者들>을 발표, 비관하였다。이해에 소련, 유고, 핀랜드 등지에서 열린 作家會議에 참석하기도 했다。

64년의 키에르케골의 탄생 150주년 기념제에 즈음하여서는<삶이었는 키에르케골>이란 題로 강연하였고, 저서전<글>에 수여된 노벨賞을 사퇴하였고, 65년 4월에는 美國의 뉴욕에 초빙되어 뉴욕 대학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싸르트르는 공명하여 그지관장이 되기도한다。다음해 10월에는 소련의 펜카리 침범사건이 일어나 단결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同 멤버들과 함의하여, 파시즘과 인종적 편견에 항의하여, 62년 2월에는 알제리아 아경문으로 참가하였으며, 62년 2월에는 알제리아 임시정부와의 遊病者들>을 발표, 비관하였다。

60년에는 보부와르를 대동하여 쿠바와 브라질을 다녀오고, 4월에는 <辯證法的 弾性抑制>제1권을 간행하였다。그다음해에는 <反逆>이라는 한사람이 되기도한다。

55년에는 <現代>를 떠난 오랜 동지인 M·뽕티와<辯證法的 비판하자 보부와르가 M·뽕티와 似而非 싸르트르主義>를 발표하여 이를 반박했다。그해에 동이서 中共을 방문하였고, 싸르트르는 여행하고, 싸르트르는 버트랜드 럿셀을 비롯하여<우리가 求하는 平和>를 제창하기도 하였고, 翌년(66년) 럿셀卿이 제창한 베트남 전쟁범죄재판국제법정에 싸르트르는 공명하여 그재판장이 되기도한다。다음해 10월에는 美國의 뉴욕에 초빙되어 뉴욕 대학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싸르트르는 공명하여 그재판장이 되기도한다。그동안 싸르트르는 『이데올로기 연구』를 발표하고, 『변증법의 방법』을 간행하였다。

<3>

위에서와 같이 싸르트르는 지구상의 여행도 무던히 했지만 思想的인 그것도 많이 했다。아니 그것보다도 思想의 여행을 위하여 지리적인 여행이 부득이했던 것이지 모른다。그러나 自由人 사르트르의 思想의 고향은 언제나 프랑스였고 또 프랑스였으니 그날까지는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며 또 계속되어야 할것이다。

나자, 이에 대한 抗議>에 보브와르와 서명하고 佛蘇友好會를 탈퇴하고, 11월에는<헝가리 事件> 이란 글을 발표함으로써 헝가리事件 폭진의<現代>에 싸르트르의 亡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58년 3월6일에는 알제리아의 신문 편집장의 拷問記錄>을 <질문>에 대하여 싸르트르는 <하나의 勝利>를 발표하였고, 이달에 싸르트르의 <질문>도 發禁이 되고 가르로, 가르뉴 가 기입하게 된것이다。그리면 앞으로 가 또 남아 있는는 것일까。역사의 윤리적인 충인으로 또 시대의 철학적인 理性으로 시대와 역사와 사회를 고찰하며, 비관적 활하고 개혁하려는 世紀의 지도자가 어디에 남아 있어, 우리의 식에 접하여 쿄넷大學에서의<프로레에 관한 강연>을 취소하고 가를 한발동안에는 돌아서 日本에 가 세번의 강연을 가졌는데 그제목은<지식인의 위치>와<지식인의 역할>및<作家의 정치참여>등이였다。

<4>

싸르트르의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환기시키위한 유니크한 표현이었고, 깊은思索의 틴 속에서 그의 관찰력은 예리했다고 한다。

그가 日本의 어느 古宮을 관광할 때도 그의 관심을 끈 것은 日本式 정원이나 茶室의 그윽함 따위가 아니고, 宮內의 발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나 정원사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질문과 『日本의 大衆, 이를테면도시의 근로자들은 집에 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등이였다고 한다。이 한토막의 장면속에는 싸르트르의 오랜 사상적 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듯도하다。

인간의 보편화에대한 갈망, 항상 보편적인 原理위에 서서 사물을 보고 일어떠한 특정의 입장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라는 의미의 人間의 보편화를 강조하고 실천한 싸르트르는 그러기에 人間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구한다。「他人의 해방없이는 自己의 해방도없다」라고할 때문이였다。그뒤 61년에, 타게하는 M·뽕티를 위하여 싸르트르는 특집을 출간하여 살아있는 M·뽕티가 그의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다고말은 오로지, 萬人의 抗議>을 보내고, 더대적인 서명을 모아 전개했을뿐아니라 <우리들은 殺人者다>를 발표하여 아울러 이에 대한 抗議>를 발표함으로써, 그러한 나는 그가 자주 드나든 까페와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가, 자신의 협력하고 저저분한 서재에서 2차전 이후의 긴직 긴직한 세계사적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해설도하고 비판도하는 기록영화 한편을 파리式 좁은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적이 다행한 노릇이었다。

실존 이래로 사람만나기를 꺼려하는 소문에다 워낙 짧은 체류기간이고보면, 처음부터 닥치도 않은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싸르트르가 안필릭, 보브와르(1908~)라도 좋다고 했더라면, 하고 뉘우친것은 로마로 가는 노정에서였으니까, 모두가 글 무엇보다도 슬퍼할 사실은 세기의 상징이며<理性>이 마지막으로 떠났는 바로 그것이다。나의 낡은 인명사전에는 서거한 연대들이 광명으로 남아있기로, 베르사이에프(1948)와 슈바이저 (1965)와 야스퍼스(1969)와 하이넥거(1976)가 차례 기입되어가더니만, 이제는거기에 싸르트르의 죽음 연대까지 기입하게 된것이다。그리면 앞으로 가 또 남아 있는는 것일까。역사의 윤리적인 충인으로 또 시대의 철학적인 理性으로 시대와 역사와 사회를 고찰하며, 비관적 활하고 개혁하려는 世紀의 지도자가 어디에 남아 있어, 우리의 믿음이었다。

<佛敎大교수·西洋哲學> 鄭 璡

時論

哲學的 虛無性으로 歷史를 재조명

孤獨 絶叫와 몸부림

◇사르트르時代는 끝났는가? 파리를 생각할때는 루브르박물관과 장·폴·사르트르가 있을뿐이다。

미학思想의 빠리장이였던것이다。

일찌기 칸트가 피니스테르히 羊期를 고되와 그리고 진실로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로 살다간 사람이며 또 이를 상징하는 독특한 패턴의 사상가라고할 수 있었다。일찌기 18세기 哲學者들이 위대한 사상가일 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몸무 르트르처럼, 독특한 패턴의 사상 世界를 현실 밖에서 구경하듯, 바라보고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的 입장과같은 것이 아니고, 現實과 더불어 움직이고, 또現實을 움직이게하기 위하여 哲學한 틀라톤的 앙가주망의 자리를 싸르트르는 철두철미하게 내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날카로운 現實主義, 어디까지나 現實에 即한 理想主義, 自由를 생명으로 아는 휴머니즘, 다양한 표현형식을 자유자재로선택·구사했다는 점에서 저 啓蒙期의 哲學者들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20세기의 볼테르나 롯소일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싸르트르의 사상의<不定>또는 羊期를 고되와 그리고 진실로 살다간 사람이며 또 이를 상징하는 독특한 패턴의 사상가라고할 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몸무 싸르트르처럼, 독특한 패턴의 사상 世界를 현실 밖에서 구경하듯, 바라보고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的 입장과같은 것이 아니고, 現實과 더불어 움직이고, 또現實을 움직이게하기 위하여 哲學한 틀라톤的 앙가주망의 자리를 싸르트르는 철두철미하게 내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날카로운 現實主義, 어디까지나 現實에 即한 理想主義, 自由를 생명으로 아는 휴머니즘, 다양한 표현형식을 자유자재로선택·구사했다는 점에서 저 啓蒙期의 哲學者들의 뒤를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20세기의 볼테르나 롯소일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4>

싸르트르의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미지를 선명하게 환기시키위한 유니크한 표현이었고, 깊은思索의 틴 속에서 그의 관찰력은 예리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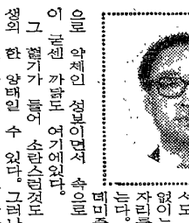
그가 日本의 어느 古宮을 관광할 때도 그의 관심을 끈 것은 日本式 정원이나 茶室의 그윽함 따위가 아니고, 宮內의 발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나 정원사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질문과 『日本의 大衆, 이를테면도시의 근로자들은 집에 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등이였다고 한다。이 한토막의 장면속에는 싸르트르의 오랜 사상적 편력의 흔적이 엿보이는 듯도하다。

인간의 보편화에대한 갈망, 항상 보편적인 原理위에 서서 사물을 보고 일어떠한 특정의 입장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라는 의미의 人間의 보편화를 강조하고 실천한 싸르트르는 그러기에 人間의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구한다。「他人의 해방없이는 自己의 해방도없다」라고할 때문이였다。그뒤 61년에, 타게하는 M·뽕티를 위하여 싸르트르는 특집을 출간하여 살아있는 M·뽕티가 그의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다고말은 오로지, 萬人의 抗議>을 보내고, 더대적인 서명을 모아 전개했을뿐아니라 <우리들은 殺人者다>를 발표하여 아울러 이에 대한 抗議>를 발표함으로써, 그러한 나는 그가 자주 드나든 까페와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가, 자신의 협력하고 저저분한 서재에서 2차전 이후의 긴직 긴직한 세계사적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해설도하고 비판도하는 기록영화 한편을 파리式 좁은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적이 다행한 노릇이었다。

실존 이래로 사람만나기를 꺼려하는 소문에다 워낙 짧은 체류기간이고보면, 처음부터 닥치도 않은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싸르트르가 안필릭, 보브와르(1908~)라도 좋다고 했더라면, 하고 뉘우친것은 로마로 가는 노정에서였으니까, 모두가 글

「他人의 해방없이는 自己의 해방도 없다」는 信念 표현

목소리를 낮추어라



<師範大교수·現代文學> 金長好

아카데미들의 목소리가 낮은것은 바로 이때문이다。사람의 진실에 호소할 지언정 선동하지 않는다。곤궁지언정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다。가난할지언정 허망함에는 매달리지 않는다。그는 뭇 작마당의 농부가 떠드는것은 돌려 광 여 목청을 돋운다。갯가의 어부나 타 자의 너비에서 불평 어렵 수 없는 전 탑의 기능으로 외치려 날틀이 간다。 따라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전자이다。그들은 사람을 합륙음으로 본다。한사람 한사람의 진실은 눈에 띄지 않는다。그만큼 그들은 청악론자일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의 작음이 늘 마음에 안찬다。그들의 목소리가 보은것은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허황함에는 상업주의 저널리즘이래서 예외는 아니다。대문짝만한 독촉장자로 놀깜짝짝 놀라게 하면서, 사람의 기 자일 것이 분명하다。 사람의 작음이 늘 마음에 안 찬다。그들의 목소리가 보은것은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의 진실은 눈에 띄지 않는다。그들은 청악론자일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의 작음이 늘 마음에 안찬다。그들의 목소리가 보은것은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대학원에는 상업주의 저널리즘이래서 예외는 아니다。대문짝만한 독촉장자로 놀깜짝짝 놀라게 하면서, 사람의 기 자일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의 작음이 늘 마음에 안찬다。그들의 목소리가 보은것은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의 진실은 눈에 띄지 않는다。그들은 청악론자일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의 작음이 늘 마음에 안찬다。그들의 목소리가 보은것은 눈앞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이지 않는 그 허망함에 비례한다。

이 그 혈기가 들어 소란스런것도 대학생의 한 양태일 수 있다。그러나 그 서도 例外없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選擧時 數次에 걸친 所見發表會는 制限됨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多辛하게도 선거운동기간에서 보여주었던 無關心에도 不拘하고 學生들의 投票參與度는 70%을 上回하고 있으며, 一般學生들이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지를 간과할 수 없다。

즉 조용하고 秩序있는 캠퍼스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意志의 표시도 主權意識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 있다고 하겠다。물론 많은 立候者의 氣立으로 인해 相對的으로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關心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것으로는 支持度의 偏在現象과 全體敎育投票에 대한 個人候補가 얻게 된 得票率의 過少現象이다。代表性이 갖는 一般性에 비추어 보아 偏在現象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선거전략과 公約의 比重에 따라 불가피할수도 있겠다。아울려 많은 候補者가 亂立하게 됨에 따라 最多得票者도 20%를 넘지 못하게 되나 반드시 過半數의 支持가 아니라도 엄연한 代表의 資格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제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낼 수 있는 관용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바다의 黃昏을 보면 누구든 詩人이 된다.

●오늘 이땅의 大學知性에게
재벌과 권력의 장막을 열어재친다

ANTHONY QUINN
JACQUELINE BISSET
RAF VALLONE

이 사나이 안소니 퀸의 配役과
여기 제크린느 비셋의役이
오늘 무엇인가
말해준다!

그리스 타이쿤
THE GREEK TYCOON

Directed by J.LEE THOMPSON

땀찬손에 쥔 黃金과 권력을 놓고
日沒의 마지막 자락속에 스러지는
달랑달랑한 목숨, 한개피
그黃金과 권력이 죽음앞에
무슨 도움이 되었으랴

公開냐? 엄폐냐?
역사의 뒤안길에서 말썽도 많았던 바로그 뜨거운 現場映畫!

UNIVERSAL STUDIOS TOUR

공개해선 안된다
빈발하는 천지를 무릅쓰고 오늘
공개되는 장막속의 人間 사건
그때 그사람!!

드디어開封!!
明宝

大學生을 爲한
英語·獨語·日語
開講 ⇒ 5月1日

留学英語
高級英作
英文解釋①②③
TOEFL TIME
AFKN(통신반있음)
三位一体, DIGEST
English 900 会話
민병철生活英語 必須英語
Word power 基礎会話,
TOEFL 就職英語
美人会話SCREEN 美語会話
Vocabulary 10,000 (20,000)
TOEFL 留学英語
大学編入英語 成文綜合英語
英作文①②
留学国史 国民倫理
日語班(初·中·高級)会話班
独逸語文法完成, 独文解釋

院長: 文昌淳
종로2가종각뒤旧EMI자리
72-9226, 74-2442

시사영어학원
時事英語學院

안경은 시력검사를 따라서

광신안경

▲▲고도근시용
▲▲백내장용

광신교예(중앙)안과 1층(三·一빌딩)
☎ 555-9

大學行政의 民主化를 爲한 우리의 다짐

激動하는 國際情勢와 急變하는 國內環境의 歷史的 轉換期에 處하여 우리 東國大學校 職員一同은 虛心坦懷하게 過去를 省察함으로써 大學民主化의 指標를 定立하여 大學의 發展에 이바지할것을 이에 다짐한다。

一, 우리는 지난날 行政의 中立性을 維持하는데 있어 勇氣와 信念이 未洽했던 事實을 是認하지 않을수 없음을 매우遺感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行政의 中立性과 學園의 自律性을 침해하는 어떠한 學內外的 要素도 이를 斷呼히 排除한다。

一, 우리는 行政業務處理 과정에서 야기된 不親切等 몇몇 問題點에 對하여 솔직히 是認하며 親切과 奉仕로 學生, 敎職員間의 信賴回復과 理解增進에 最善을 다한다。

一, 우리는 行政의 民主化를 促進하여 보다 明朗하고 責任있는 行政風土의 造成으로 創造的實現을 通해 大學의 發展과 東國傳統蓄積에 全力을 다 한다。

1980. 4.

東國大學校 職員 一同

學生活動, 새로운 轉機맞아

總72.88%의 높은 투표율 나타내

「自由의 視祭」 저버린 小市民的 태도 反省돼야

學生會 움직임, 歷史的 民主化 運動의 成敗

지난날 우리의 學園은 모든 民主的 합의과정이 영압되었고 하향식 조정을 강요받았던 어두운과 틀을 음미해 본다. 거를 지니고 있다. 이에 學園民 花는 당연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學園民主化 작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總學生會長 선거라는 커다란 役事까지 이룩해 놓은 대의원회는 지난 18일 4·19 스무돌 기념행사의 하나로 金大中 前 新民黨대통령후보의 詩人 고은씨를 각기 연사로 초청하여 본관 중강당에서 4·19영령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이를위해서 그산대의원회(의장=정기섭·정외4)에서는 이번행사의 연출자를 2사람으로잡고먼저 고은씨를 내정했으며 나머지 한명에 대해 金씨로 결정되기 바로전까지 계속해서 물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金大中씨의 초청을 金씨측과 대의원회의 접촉봉화와 대의원회의 학생파견 교섭으로 밤안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의 초청경위는 너무나 단순했다. 나머지 한사람의 연설자가 金씨로 결정되자 대의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학교당국에 알렸으며, 金大中씨의 연설은 자치하고 金씨의 연설은 연기하게 되면 新民黨 결렬을 선언하고 난무 각각을 돌면서 이미 실질적으로 선거유세나 다름 없는 연설을 하고 있는 金大中씨이기 때문에 本校 강연석상에서도 틀림없이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처음부터 金大中씨 초청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었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이러한 학교측의 우려를 뒤로한채 급기야 초청을 강행해 버렸고 학교당국도 어디까지나 學生들에 의한 自律的 행사임을 고려, 묵인 반대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행사를 예정대로 속행케 했다. 다만 그전에 학교당국은 학저장회의를 통해 「이번 행사를 무기 연기할 것이며 학원민주화가 개인의 의사를 피력하고 이를 구가하는 자주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대사회적 심천을 통한 공극적 문제해결에 있다고 할때 개인의 다양한 의사로 우리의 공동과제와의 총체적 맥락에서 위치 지워져야 할것이라 생각한다. 이에따라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선결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며 순간적이나마 현장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배제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때 우리는 다음의 詩 句를 되뇌이며 그리고, 내일 또 모여들 울렌데 그리고, 내일 전진 찌꺼기들을 모여들 울렌데

學生으로 構成된 會則審議委員·學處長, 平敏授등 회칙심의위원 14人이 수정·보완한 總學生會會則이 지난 8日(水) 代議員會에서 통과되었다. 이어 本會則에 준해 선거관리위원 25人과 특별위원 2人으로 選管委가 구성되고 지난 14日(月) 오후 3時, 중학생회장 일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되었으며 本校와 慶州分校에서 총 4차례에 걸친 합동선거유세(遊說)를 가졌다. 한편 22日(火) 각단대별로 實施된 투표에서 本校는 72.88%의 높은투표율을 나타냈으며 단대학생회장단및 중학생회장, 여학생회장 개표가 있었다.

I. 民主主義 運動

學生會의 6年만의 復活은 우리학생 民主化에 큰 정조이며 가닥난 韓國의 社會政治풍토에 發芽을 올려줄것이다. 한편 앞으로 學生會의 움직임은 이 역사적인 民主化運動의 成敗에 關鍵이 될 것이다. 허나 우리가 치룬 民主化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지난 11일(金)부터 14일(月)까지 4일간에 걸친 속박한 후보자등록기간 쟁정으로 야기된소음을 들어본다. 8名의 總學生會長 副會長 입후보자중 7명이나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선 완위는 긴급회의를 소집, 등록마감 예정이던 14일 정오를 15일 오전 10시로 연장하여 전원구제하는 방법을 취하여야했다. 또한 選擧시행세칙중 후보자들의 學點이수(80學點) 조항이 成文化과정에서 누락돼 79學點을 받아들여야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설픈들을 추후 대의원회에서 심의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오랜만의 民主主義에 당황과 혼란으로 인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된 民主主義를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할것이다.

우리가 가져야할 選擧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明性을 생명으로 한다는것을 주지하면서 우리의선거관리, 선거운동등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본교의 總學會選擧시행세칙중 제11장 62조 4항을 「선관위원·입후보자의 비방·음식물제공·기부행위및 외부로부터 금전수수행위등은 금지한다」고 公明正大한 선거가 이루어도록 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전원이 비밀선거제로인해 경고를 받는바 있으며 특히 모후보자는 2차음주파동을 야기, 후보자들의 불만을 사게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마침내 본교생들에게 외부 外部人들과의 충돌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知性人들이 모여 생활하는 소위 신성한 학원에서 폭행사태가 야기된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특히 佛敎大 승가학과 학생들의 집단사태가 발생한 것은 설로 유감이 아닐수 없으며 이는 本校 즉 학원이라는 울타리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생각해 볼때 더욱더 통탄할 일이 아닐수없다.

이날 승가학과의 학악생은 金씨가 학적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을 총장비서실까지 몰려들어가 학교당국과 金씨측근들에게 金씨 연설을 마치려들었는데 金씨측은 이에 학생에게 양두린 혜명이나 답변도 하지 않은채 이 학생을 내보내 버렸다. 곧이어 승가학과 學人 스님들은 「김대중씨의 4·19기념강연은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라」 「연수원생 김대중씨」 등의 피켓을 들고 佛像앞에서 「4·18 金大中강연」이 우리에게 던져준 여러는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 문제는 단지 宗敎的 次元에서 연관지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學園內 政治연합이라는 측면에서 大學街전반에 걸친 문제로도 될 수가있다.

어쨌던 金씨의 부의미한 한마디마저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던져준지도 모른다. 「東國雜誌」를 수호하자! 「學園의 기본권과 폰임정을회복자!」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건지 분하지만 반성의 여지가 너무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많은 이들은 말한다. 우리 東國人에게 2개의 「화살」이었다면 한개는 金씨에게, 그리고 남은 한개는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던져져야 할 것같다.

최종적인 책임이 지나친 자승화에 편승하여 행사를 김정한 대의원회에 있는 것처럼 일부해버린 김대중씨 연연은 종지않을 것이라 우려했던 대의원회의 인파가 外部人들과 5만여명의 인파가 본교생과 청중의 총을 일깨웠다고 본교생과 청중의 총 연연을 통해 「강연자 선정」 「학술적 인사」 「우려했던 강연」 「강연자 선정」 「학술적 섭격」 「강연자 선정」 「학술적 섭격」 「강연자 선정」 「학술적 섭격

四月의 祭壇앞에서

변정송

조국에 바친 젊은 化身, 풀이 되어 이슬이 되었읍니까. 그러나 편안한 祈禱가 여물때, 바람이 되었읍니까. 그러나 편안한 祈禱가 여물때, 苦惱스런 얼굴은 지워 주십시오.

〈佛敎大 僧伽學科〉

學園의 中立化 지켜야

김충섭

대학은 순수한곳, 지나친 정치성 피해야 學生의 연한 4·19강연, 개인선전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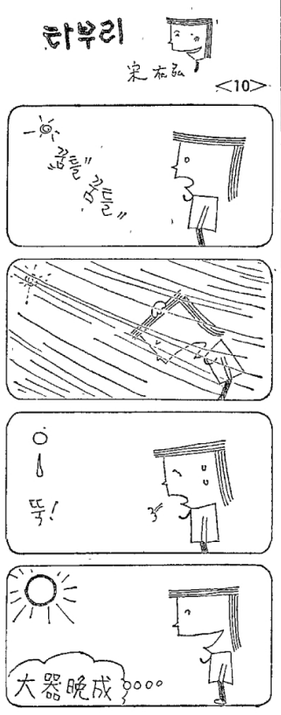
〈師範大 國敎科〉

불이문 가는 길목에서

유진숙

우리는 미지의 새처럼 훨훨 날고 싶어요, 자유롭게요. 보고싶던 새들은 죽고 없을지라도 꽃잎처럼 흐르고 있는 강물에 하염없이,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고 싶어요.

〈師範大 國敎科〉



꽃이 피는 까닭
엄기원 지음

本校 교육대학원에 국어교육을 전공하고있는 엄기원의 동요·동시집이 서문당刊으로출판되었다.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동시로 당선되어 그동안 『나뭇잎 하나』 『아기와 염소』 『어린이 만세』 등의 동시집을 낸적이 있는 저자는 제7회 한정동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살려줄 수 있는 이 동시집에는 「꽃이 피는 까닭」 「나그네의 날」 「서울야경」 등 60여편의 동시가 실려있다.

<서문당刊·125面·1200원>

그리움이 타는 길목
金東必 著

1963년 本校 정외과를 졸업한 金東必동문이 『하얀 대화』이후 2번째 수필집 『그리움이 타는 길목』을 海東出版社刊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신문, 잡지, 동인지 등에 발표했던 약 70여편의 글이 실려있다.

<海東出版社刊·257面·1,800원>

안내 새책

學園의 中立化 지켜야

김충섭

대학은 순수한곳, 지나친 정치성 피해야 學生의 연한 4·19강연, 개인선전에 그쳐

메아리

요즈음 東國

특교함

◇大學街제반사항에대한 비판·건의등 여러분의 젊은 발언을 기다립니다.

서울순례 <7>

농어촌연구회

전신자회

M·R·A

農硏會 참다운 농촌 대변자로서 역할할 터 적십자 赤十字精神 실현 위해 통찰력 심화 MRA 「聽聽과 분담」이 自我發見의 기회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新刊圖書
서울·성북구 안암동 5가
대체구좌 : 서울 611764번
☎93-6311

姜晋哲著
高麗土地制度史硏究
●菊版 / 480面 / 10,000원
本書는 田柴科 体制下의 토지제도를 体系있게 망라하여 각 種目의 土地를 地目別로 해설하고, 특히 각 地目의 토지의 經営形態에 주목하여 그 実相의 연구에 노력하였다.
土地制度의 해명과 동시에 農民의 부담인·收取関係에 언급하고 또 在来의 論争의 초점인 土地国有制說에 관해서도 이에 反対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田柴科体制下의 農民의 性格, 村落의 실태, 公·私田의 差率收租 등에도 論及 — 田柴科体制가 韓国社会의 発展過程에서 어떠한 단계에 위치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韓国史의 時代区分이라는 관점에서 추구하여 田柴科体制社会의 実質面을 파악하기에 주력하였다.
主要內容
▲第1章 新羅統一期의 土地制度
▲第2章 遼国 직후의 狀態와 役分田의 設置
▲第3章 田柴科制度의 制定 및 그 內容
▲第4章 私田支配의 諸類型
▲第5章 公田支配의 諸類型
▲第6章 農民의 負担
▲第7章 田柴科体制의 崩壞
▲第8章 田柴科体制와 관련된 諸問題

金昌煥編
韓国昆虫分布図鑑
《第1·2·3篇 完刊》
本書는 「欧州無脊椎動物調査法」에 의하여 작성된 韓国昆虫의 分布図로서 国内 각 기관에 保存되고 있는 標本을 조사하여 韓国 곤충의 채집지를 10km平方으로 区劃된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Grip Map위에 적절한 標識方法으로 기록하고 있다.
地名은 世界共用인 라이샤워表記法과 漢字가 병용 풀이되었고, 곤충에 대한 간단한 설명(英文), 곤충의 흑백写真이 수록되었으며, 또한 각종 곤충의 月別採集頻度表까지 첨부되어 언제 어디에서 採集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主要內容
▣第1篇 / 나비類 (1976년 10월 간행)
彩倍版 / 本文210面·図版22面 / 12,000원
▲韓国産 나비 254種中 172種의 사진 214枚·분포도 172枚 수록
▣第2篇 / 딱정벌레類 (1978년 3월 간행)
彩倍版 / 本文432面·図版36面 / 25,000원
▲韓国産 딱정벌레 54科 1,148種中 36科 346種의 사진 426枚·분포도 346枚 수록
▣第3篇 / 벌·파리類 (1980년 2월 간행)
彩倍版 / 本文376面·図版40面 / 25,000원
▲韓国産 벌 39科 179種-사진 193枚·분포도 179枚
▲韓国産 파리 8科 14種-사진 126枚·분포도 114枚

金潤煥著
転換期의 中共経済
●菊版 / 290面 / 5,500원
30年 동안 経済近代化에 힘써왔고 世界列強의 앞줄에 서기 위해 4大現代化를 내세우는 中共経済의 実像과 虛像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評価는 구구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內容은 毛澤東의 経済戰略近代化過程, 鎭1.業과 資源, 科学技術과 人的資源, 工業企業管理制度, 対外貿易과 経済協力, 転換期의 中共経済로 구성되었고, 부록은 蘇·東欧·北韓의 経済現況 紹介이다.
主要內容
▲序 章 中国革命과 経済建設
▲第1章 中共経済의 近代化過程
▲第2章 中共의 鉱工業과 鉱物資源
▲第3章 中共의 科学技術과 人的資源
▲第4章 中共의 工業企業管理制度
▲第5章 中共의 対外貿易과 経済協力
▲結 論 転換期의 中共経済

세계인의 교양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5월호 값600원 한국어판
ABC 판매부수 공증기관 영국 ABC에 가입
●세계최대의 교양잡지 15개국어로 매호 3,000만 부 판매 —
이달의 명작다이제스트
내마음의 소년
다이제스트 특별취재
—가짜 교회의 횡포와 치부— 사이비종교의 탈을 벗긴다
생활속의 드라마 풍선을 타고 자유를 찾은 두 가족
□네팔, 19년 독재는 끝났지만
□손문과 런던의 청국공사관
영화대역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석가모니:그 탄생에서 열반까지
□당신의 과학상식은 몇 점이나 될까요?
□축구광 주교님과 거꾸로 시작된 결혼식
다이제스트 화랑 자연의 혼을 찍는 사진작가
수입도서판매중
Reader's Digest 영어학습서
Great Encyclopaedic Dictionary
영어사전과 백과사전의 기능을 함께 묶은 세 권으로 된 혁신적인 사전
1,744페이지/15×23.5cm/정가 30,000원
Family Word Finder
20만 단어를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된 동의어와 반대어에 관한 사전식의 새로운 책 6월초 판매
896페이지/17.5×23.5cm/정가 15,000원
Write Better, Speak Better
영어 작문 및 회화능력을 높여주는 실용 가이드
760페이지/15×23cm/정가 15,000원
How To Increase Your Word Power
1만개 중요단어 하루 15분 학습으로 단시일내 소화
728페이지/16×23cm/정가 15,000원
Use The Right Word
영어 단어의 올바른 활용법에 관한 최신 가이드
726페이지/17.5×23cm/정가 15,000원
구입방법
1.한국어판 리더스 다이제스트 5월호에 구입신청서가 삽입되어 있읍니다.
2.안내서를 원하시면 우송하여 드립니다
3.전화나 서신으로 신청하시면 지정된 우체국으로 책을 우송합니다. 신청자는 "우편물 도착 통지서"를 받는 즉시 우체국에서 대금과 책을 교환하십시오 (대금교환제도)
4.이 책들은 시중에는 없으며, 있다면 해적판입니다.
合同通信社 발행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업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8-4 전화:74-0151-7(교)73-8056(직)